

pilar rojo.04

3월의 반지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반”

__목차



총여학생회?

01__총여학생회, 그녀들은 누구인가__2

02__2008 비상하고 대책 있는 모임 “반”__?

03__나의 “반”을 돌아보며__?

04__성균관 ‘그녀’들의 발자취 - 총여학생회 성과__?

3·8 여성의 날 특집__여성, 말하다

05__여성의 날은 여성을 ‘위해 주는’ 날이 아니다__?

06__여휴가 필요하지 않을 날을 만들어가요__?

07__여성의 이름으로 말하다, ‘反’언어성폭력!__?

기획

08__위험한 여성학, 위기의 여성학__?
반과 만나요!__?

01___총여학생회, 그녀들은 누구인가

__총여학생회, 그녀들은, 대체, 누구인가

내가 제일 처음 총여학생회의 존재를 인식했던 것은 신입생 새터에서 선배의 말을 통해서였다. 새터에서 여장을 했는데 수위가 높아서 제재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남자들이 '단지 재미로' 했을 뿐인데 발끈한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입학 후에도 신나게 들려왔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마치 총여학생회는 취미는 싸움이요, 특기는 시비인 여자들의 이야기이고, 남학우들의 단순한 농담을 문제 삼고 즐거운 장난을 방해하는 골칫덩이, 마녀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느새 총여학생회와 '여학생'인 나를 분리시켜 생각하게 만들었다. 마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총여학생회, 그녀들은, 대체,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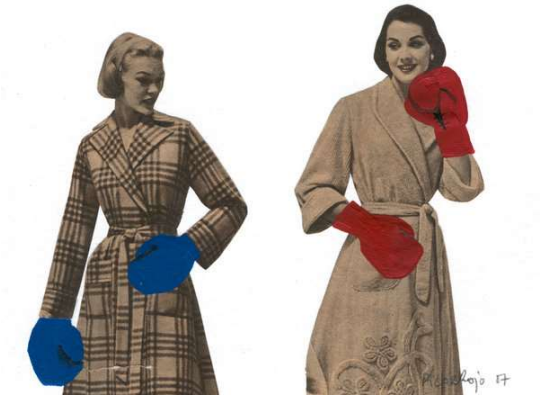
총여학생회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그녀들은 방금 당신과 함께 점심을 먹은 친구일 것이며,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우일 것이다. 어쩌면 총여학생회는 바로 당신일지 모른다. 누군가는 '재미로 하는' 언어성폭력을 불편해 할 누군가를 지지하고 싶고, 때때로 교수님이 '별 생각 없이 하는' 성차별적 발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어떤 이들이 '취한 탓에 실수로 한다고 하는' 각종 성추행,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와 친구들을 지키고 싶고, 성별 때문에 생기는 많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바로 당신. 그런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녀들이 모인, 그 곳이 바로 총여학생회다.

__그녀들이 성균관에 존재하는 까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안에는 아직까지도 단순히 성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많은 차별과 폭력들이 건재하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의 이름들. 집안일 하기, 아이 키우기, 외모 가꾸기, 순결할 것, 조신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얼

마나 많은 것에 '여자가…' 라는 말이 붙는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슬퍼진다. 우리가 있는 성균관은 어떠한가. 흔히 대학이라는 공간은 가장 자유롭고 진보적인 곳으로 여겨진다. 일정 부분 사실일 테지만,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대학 역시도 성차별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지성적인 공간이라고들 하는 대학에서조차, 여성들은 '별 뜻 없이' 혹은 '재미있으라고' 던지는 '농담'으로부터 받는 모욕감을 호소할 수 없고,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85년, '여학생회의 특수성과 사회, 학내의 흐름이라는 일반성을 담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참인간화, 사회 민주화를 향한 진전'을 본질적 목표로 하는 제 1대 총여학생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학내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한 총여학생회뿐 아니라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 그리고 각 단위대학의 여성주의 네트워크 등 학내 곳곳에서도 여성의 권익을 찾기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적인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하여,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말하자면 총여학생회는 여성이기에 겪어야 하는 여학우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학의 구성원이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학내에 당당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 단위들과 함께 하는 곳인 것이다.



02__2008 비상하고 대책있는 모임 “반”

2008년 초, 쪽문 성폭력 사건 대자보를 온 학교에 붙여대며 시작한 ‘반’의 활동이 어느새 끝자락이 되었네요. ‘반지’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는 ‘반’이 특히 더 가까이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1년을 함께 해 온 ‘반’을 보내며 안녕이라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지만, '반‘에게 안녕은 오히려 시작을 알리는 안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보다 더 많이 안녕한 성균관을 위해 눈물 찔끔하며 ’반‘에게 안녕.

__‘반’의 시작, 반성폭력 대자보전

‘반’은 2008년 시작을 쪽문 성폭력 사건의 지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를 받고 대자보를 붙인지 오래지 않아 많은 신고가 들어왔지요. 성폭력이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이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혜화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구대 순찰경로 개선 및 강화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사건 경과보고를 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해 담론을 형성하였지요. 그리고 이 자보전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알렸고, 그 결과 자보를 본 학우의 도움으로 가해자 중 한 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__여성주의 축제, 여성현실제와 움페스티벌

‘우리는 왜 페미니즘을 잊어가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여성현실제는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문과대, 사회대 학생회와 함께 해서 더 즐거웠고 더 의미 있었지요. 우리네의 선배‘님’들이 무차별적으로 행하시는 성차별적 언행에 분노해 보기도 하고, ‘반’의 시작점이었던 학교 주변 자취구역의 성폭력들을 알려내는 차원에서 여성의 안전한 밤길을 위한 ‘동네 한 바퀴’ 돌기 행사를 치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명륜동조차 여성들에게는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작업이었죠. 금잔디에서는 덧버선을 준비해놓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고 팔짝팔짝 뛰어노는 놀이터를

만들었고, 티셔츠에 그림그리기, 정정헌 전시회 등의 행사도 진행했구요.
움페스티벌 때는 금잔디에서 여성주의 도서 전시회를 열고, 생리대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생리대 만들기를 했습니다. 도서전시회 한 켠에는 포토월을 마련하여 여/남이라는 이분적인 젠더에 갇히지 않고 여러 소품들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성정체성을 찾으며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리고 여성현실제에서 그린 티셔츠 전시회와 우리 몸을 찍은 사진을 전시하였고, 여전히 찾을 수 없는 안전한 밤길에 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동네 한 바퀴는 계속되었습니다.

__'반지' 발간 & 매 학기 중 정기 세미나의 진행

여성들 간의 소통의 부재와 여성주의 담론이 거의 형성되고 있지 않은 학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성주의 소식지 '반지'를 발간하고, 학기 중 정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성현실제와 움페스티벌을 보고 찾아오시거나, 세미나 알림 대자보를 통해 오신 분 등 다양한 학우들을 만나 함께 연애, 동성애, 성폭력, 가족, 외모지상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세미나 때 다뤘던 다양한 주제들과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성주의 이야기를 소담소담 담은 '반지'는 '반'의 활동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니,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릴게요!



03___나의 "반"을 돌아보며

총여학생회와의 인연은 어느 날 나에게 생긴 나쁜 일 때문에 시작되었다. 학교 주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막막한 마음에 총여학생회를 찾아갔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는 아웃사이더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낯선 총여방의 문을 두드릴 생각이 들었다니 지금 돌이켜 보니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긴 힘들었나보다.

처음 만나는 총여 사람들이 낯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에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고 물었지만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차림새를 먼저 묻다니!) 총여학생회 친구들은 내가 겪은 공포와 상처를 함께 해주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다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명륜동 일대의 성범죄자 한 명이 검거되는 기쁜 일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쪽문 쪽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혜화경찰서에서도 동네 순찰 횟수를 늘렸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아무 것도 바꾸지 못했다. 여전히 어두운 골목길은 여성들에게 무섭기만 한 곳이고 세상의 모든 성범죄가 뿌리 뽑힌 것도 아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기만 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밤마다 떠올리면서 나를 울게 만들었던 성추행의 상처가 이제는 피식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밤늦게까지 대자보를 쓰고 평생 한 번도 갈 일이 없을 경찰서를 몇 번씩이나 찾아가며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준 총여학생회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이번 학기를 마치고 나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학교를 졸업한다. 대학은 지식의 영안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좋은 선생님들과 몇몇의 친구들 덕분에 대학에서 많은 것을 얻어 간다고 믿는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학 생활에서의 가장 큰 소득 중 하나이다. 국제화

와 취업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학교에서 인문학도 노릇을 하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았기에 떠나는 데에 미련은 없다. 하지만 같은 듯 다른 듯 다양한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성현실제(1학기에 열리는 여성주의 축제. 연예인도 없고 경품도 없지만 색다른 재미가 있을 걸?)를 준비했던 그 시간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실컷 할 수 있었던 여성주의 세미나는,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자주 드나들었던 총여방(학생회관 411호라지요, 놀러 와요!)의 정겨움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만큼 아쉽다. 그러므로 마지막 인사는 내가 떠난 후에도 총여방을 지키고 있을 그대들에게 보낸다. 고맙고 고마운 친구들, 더 씩씩해지고 더 많이 웃고 더 더 더 많이 행복해지길!



04__성균관 '그녀'들의 발자취 - 총여학생회 성과

▶ 83' 여학생제대 발족

학도 호국단내의 집행부인 여학생부가 학내에서의 여학생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83년부터 '여학생제대'로 발족하였습니다.

▶ 85' 제 1대 총여학생회 출범

▶ 87' 제 3대 총여학생회

신입여학생수련회 개최, '여명' 발간, 여성민주화추진위원회 창설 등과 같은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 88' 제 4대 총여학생회

기층 단위 여학생회를 건설하는 데에 집중하여, 그 결과 5개 단대에 여학생회가 세워지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AIDS추방투쟁, 성고문 투쟁, 총선 투쟁과 같은 움직임을 이끌기도 했고요. 특히 그때에는 대학에서도 남학생은 교련수업을, 여학생은 무용수업을 교양필수로 이수해야했다고 해요. '무용수업 선택전화 투쟁'을 벌인 결과 지금의 우리가 무용수업을 무조건 모두 다 들어야 하는 상황은 면하게 된 것이랍니다. 또한 당시 급속하게 번지던 성 상품화에 대한 문제제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 89' 제 5대 총여학생회

89년에는 총여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드디어 학내에 여성학 강의가 처음 개설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때의 요구로 문대 여학생 화장실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죠. 여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 90' 제 6대 총여학생회

여성학강좌증설요구, 문과대 여휴 도서대출사업 확대 실시, 여성문제연구 심포지엄 개최, 각 단대별 여휴설치 요구와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 91' 제 7대 총여학생회

여성학 강좌에 대한 올바른 방향 모색, 남녀학생에게 동등한 취업추천서 배부 실현, 취업정보 활성화 및 취업에 필요한 실무기능 습득 강좌 실시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문과대, 사과대 여휴와 정정헌의 나은 환경조성, 정정헌의 비디오 사용 개방, 문과대 여휴 도서대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안에 대한 여학우들의 요구안을 대중적으로 채택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죠. 또 탁아사업을 강화하고 여학생 한마당, 자주여성학교, 여성현실제와 같은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 92' 제 8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행위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탁아입법, 정신대 문제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8대 총여는 단위별 취업준비 모임을 주선하고 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 설문조사 및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여학생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학 강좌에 대한 방향 모색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져왔고요, 여학생 휴게실 개선, 생리대 자판기 설치와 같은 복지사업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탁아활동 사업과 더불어 공부방 자원 활동가 모임을 꾸렸으며, 농활시 부녀반과 아동반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김보은 김진관 사건' 토론회를 갖고 근친성폭력에 대한 문제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죠.

▶ 93' 제 9대 총여학생회

제 9대 총여는 〈함께 살아가며 고민하고 사랑하는 아홉 살 소꿉친구〉를 모토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어요. 우선 총여학생회 대행위에서 여학생 화장실을 통한 '친구에게' 편지사업을 실시하고, 사회 이슈에 관해서는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윤금이씨 사건'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였고요. 정신대 할머니들 생계를 돕기 위한 양말판매 사업을 전개했답니다. 또한 소모임의 집단적인 공동체 놀이문화 고민이 있기도 했답니다. 여휴를 통한 비디오 상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 및 대여 등 복지사업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8대 문여와 함께 성교육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 94' 제 10대 총여학생회

10대 총여는 〈열린 사랑, 힘찬 단결〉을 모토로 활동하였는데요, 이때 〈나로 알기, 우리로 풀기〉라는 이름의 제 1회 여성현실제가 처음 개최되었답니다. 새터 때는 광고매체에 나타난 성의 상품화와 여성의 가사노동, 슈퍼우먼 콤플렉스 등을 다룬 슬라이드를 상영하였고요, 탁아서 자원 활동인 '나눔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대 할머니 사업, 매 맞는 아내들을 위한 쉼터 방문,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의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 95' 제 11대 총여학생회

제 11대 총여는 정기소식지인 '새벽편지'를 발간하였고, PC통신 HITEL게시판과 상담전화를 통한 여학우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체 비평모임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당시에 사회과학대에서는 여학생회를 세우기 위한 '여학생회 건준위'가 있었는데요, 정기 간담회, 여성학학습, 여학생 휴게실 관리 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지만 방해세력으로 인해 여학생회를 세우지는 못했다고 해요.

▶ 96' 제 12대 총여학생회

제 12대 총여는 기존 새터의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에 저항하고, 여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갖고 처음으로 여새터를 기획했다고 해요. 또 여성영화제 주간을 설정해서 영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만화비평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만화를 다시 보는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

답니다. 그리고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도서관 강간미수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성폭력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97' 제 13대 총여학생회

96년 도서관 사건이나 일명 ROTC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반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성폭력 근절 주간을 설정하고,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 등의 사업을 벌인 결과 학교 측에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긴 하였으나 이는 상시적 기구가 아니었고, 가해자 처벌 기준도 불명확했었죠. 제 3회 여현제에서는 레즈비언 문제와 같은 성정체성 문제, 미혼모 문제 등을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로 표현해냈죠.

▶ 98' 제 14대 총여학생회

제 14대 총여는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97년에 결성된 '연대회의'의 활발한 활동 또한 빠질 수 없겠죠. 특히 '여성연대한판'을 공동주최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내의 여성 모임간의 소통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99' 제 15대 총여학생회

제 15대 총여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였고,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갔어요. 여성학 강의 실사 평가를 주장하고 성교육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죠. 제 2회 비틀기 대학을 통해 우리시대 남성읽기, 여성 실업, 이성애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의 동성애를 주제로 이야기 하였고, 반짝 세미나 개최, wom festival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어요. 취업강연회 개최, 여성학자료 보완, 여성학 도서관 강화, 여성문제 워크숍 등도 주요사업이었답니다.

▶ 00' 제 16대 총여학생회

제 16대 총여는 주로 여성 노동에 관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대졸여성 실업 극복을 위한 여대생 취업준비 실태와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극복방안' 행사에 참가하였고, 제 7회 여성현실제를 문여와 법대 여성학회 씨줄과 날줄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여성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 01' 제 17대 총여학생회

제 17대 총여는 여학생 새로 배움터에서 성문화 강연회, 반성폭력학칙설명회, 역할극, 여성주의 체육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죠. 3월에 있었던 여성의 몸 바로알기 〈날씬하면 고맙냐, 이눔아?〉행사에서는 성문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제 8회 여성현실제를 법대 여성학회 '씨줄과 날줄'과 공동기획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답니다.

▶ 02' 제 18대 총여학생회

제 18대 총여는 여새터, 3월 새내기 성교육학교, 제 9회 여성현실제 등을 진행하고 방중에는 동두천 기지촌활동을 했

습니다. 제 6회 wom festival에서 타 학교의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여학우 휴게실의 여건 개선 및 여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여성의 몸에 관해서, 브래지어를 하는 '당연함'에 대한 문제제기, 화장에 관한 짧은 분노 등의 이야기를 펼쳤죠. 대동제 때에는 총학이 주최한 100대100 미팅 등에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전부터 계속 가열차게 이어져 온 총여의 반성폭력 학칙제정의 노력이 총여와의 상의 없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안으로 날치기 통과되는 씁쓸함을 맛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 03' 제 19대 총여학생회

제 19대 총여는 여학우들의 소통을 위한 '달거리 소식'을 발행하였고, 교수 성폭력을 주제로 학내에 문제제기를 시도하였습니다.

▶ 04' 제 20대 총여학생회

제 20대 총여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을 필두로 여학우 지원 프로젝트, 여자친구들끼리의 여행 지원, 여성주의 세미나와 같은 힘주기 사업을 많이 벌였고요, 방중엔 여학우들과 함께 여름 마실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 11회 여성현실제를 통해 총여학생회와 함께 해온 반성폭력 학칙의 7년, 현재 반성폭력 학칙 다시 보기를 시도했고요, 연장선상에서 화장실 성폭력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여학생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동제 때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단체인 '새움터' 연대 장터를 마련하였죠. 또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가들을 위한 민우회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 06' 21대 총여학생회

제 21대 총여는 강의 중 언어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여성현실제와 '움틔우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지원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위해 학교 본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06년 봄날에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금잔디에서 여성주의 도서를 개방하여 수요모임을 주선하여 여성주의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요.

총여학생회를 이끈 언니들의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나 작아서 학내 활동에 중점을 두어 총여의 지난 발자취들을 이야기 해보았어요. 06년도 이후 활동하였던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앞으로 총여학생회가 해나갈 일들이 더 많기에, 여기에서 이만 줄일게요. 모두가 성에 구애 받지 않고 함께 행복한 성균관을, 09년에도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05__여성의 날은 여성을 '위해주는' 날이 아니다

__1
내가 겪었던 여성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 중 하나.

"그 친구는 여성주의자니?"
"응. 여자를 엄청 위해줘."

__2
얼마 전 모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진행하는 특집을 본 일이 있다. 쇼 프로에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무슨 시사 프로 수준의 사회 비판을 해 주기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보고난 뒷맛은 결국 씁쓸했다.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정도를 이 프로를 통해 확인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날이니 여성들을 부르자. 여성의 날이니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여성의 날이니 여성을 '위해주자.' 여성을 부르고,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여성을 위해 주는 '그들'은 누구인가? 여성의 날은 정말 그런 날일까?

__3
여성주의는 여성을 '위해주는 행위'이고, 여성의 날은 여성들을 '위해주는 날'이다 - 이 문장을 곱씹다보니 여성주의가 받는 수많은 오해 중 하나의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다. 여성주의를 흔히 여성에게 호혜적인 것, 더 나아가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성주의자(남성)는 여자에게 잘 해주는 남자가 되고, 여성의 날은 여성들에게 잘 해주는 날이라는 난감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남성들이 여성을 위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불러주어 나타날 수 있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누군가 들어주길 기다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위해 주길 원하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할 힘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주의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러주겠다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우리를 위해주겠다는,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숨겨져 있던 주체는 이렇게 드러난다. 여성을 부르고, 여성의 말을 들어주고, 여성을 위해주는 숨은 권력자. 여성을 위해주는 것 같은 그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 여성은 불러져 전시되고, 말하고, 수혜자가 된다.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장면들조차 사실은 남성 중심적 가치나 시선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 여성주의는 그런 것이다.

__4

101년 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러트거스 광장으로 나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쳤다. 차별에 항거한 여성들의 연대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 날은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되었다. 매년 3월 8일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전(全) 지구적인 '들썩임'이 일어난다. 남성이 특별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려내는 날. 여성의 날은 그런 것이다.



06___여휴가 필요하지 않을 날을 만들어 가요

우리 학교에는 학생회관 4층(정정헌), 경제관 1층, 법학관 지하 2층(지소담)에 여학생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 학교 내 공간에서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성별 불문 여남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 학교에는 왜 여학우들을 위한 휴게실이 따로 꾸려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학내 공간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__운동장, 헬스장 이야기

수업이 일찍 끝나거나 공강 시간이 길어서 할 일이 없을 때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학교 내의 헬스장이나 운동장을 향한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여학우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운동이 필요한 것은 여남 모두 마찬가지이고, 학교 내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헬스장과 운동장은 마치 남학우들만의 전용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다수가 남성이기에 운동장과 헬스장은 남성들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분위기는 여학우들의 참여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 공간은 점점 더 남성들만의 공간으로 굳어진다. 이런 문제제기에 있어 이런 공간에서는 여학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여학우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운동하고 싶은 여학우들이 어색함과 불편함 때문에 헬스장과 운동장을 찾지 못한다면 그 불편함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스포츠는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기에 운동하는 여성은 여성답지 못하다는 편견의 대상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운동은 외모를 가꾸기 위한 다이어트의 수단일 때에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땀 흘리는 운동을 즐겨 근육이 발달한 여성은 여성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학우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운동장도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스며든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__흡연 구역 이야기

학교 건물의 입구와 건물 내 각 층 엘리베이터 옆 공간은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구역으로 이용된다. 이 곳 역시 여학우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공간이다. 여학우들 중에도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흡연 구역에서 그녀들과 마주치기 어려운 이유는 과연 뭘까.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기호식품을 선택/비선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임에도 여성이 흡연을 선택함으로써 감당해야하는 부담감은 그리 가볍지 않다. 학교 외부 공간에서 담배를 피던 여성이 주위의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학내는 그나마 여성 흡연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이라고 하지만 흡연 구역에서 떳떳하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직도 그녀들에게 부담스러운 경험이다. 담배 피다가 마주친 남자 선배는 몸에 안 좋다고 금연할 것을 권유하지만 담배가 여자 몸에 더 안 좋은 것도 아닐진대 왜 다른 남자후배들에게는 하지 않는 권유를 여자 후배에게만 하는 걸까. 담배피우는 여자에 대한 편견에 의해 여학우들에게는 흡연 공간마저 불편하고 어색한 공간이 되어 버린다.

__높은 계단과 언덕 이야기

600주년 기념관을 지나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높은 계단 길은 치마를 입거나 하이힐을 신은 여학우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수선관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또한 마찬가지이다. 치마를 입은 날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에 신경이 쓰이고, 하이힐을 신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높은 언덕길에서는 발목 다칠까, 미끄러질까 조심해야한다. 지금은 미끄럼 방지제를 뿌려 한결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공간이기는 마찬가지다. 계단이나 언덕 등 학교 공간의 여러 부분들이 여학우들에게 불편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꺼내면 '그럼 언덕을 깎으라는 건가?', '미니스커트 안 입고 하이힐 안 신으면 되지 않나?'라는 반응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요는 언덕을 깎자는 것도 아니고, 하이힐을 못 신으면 발가락에 가시가 돋는다는 것도 아니다. 학교는 여남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학내 공간을 돌아보고 서로의 불편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인 것이다. 학내의 환경이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을 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__과방, 동방 이야기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 생활의 모습은 과 생활, 동아리 생활을 통해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 문화 속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더라도 즐거운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흐릴 것이 걱정되거나, 이상한 애로 낙인찍힐 것이 겁나서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여자 후배들을 남자들 사이에 끼어 앉히려는 선배들의 요구나 러브샷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의 '자연스러운' 대학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예민함을 탓할 뿐이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라면서 부은 얼굴을 하고 머리를 긁으며 과방에 누워서 쉬고 있는 남학우를 떠올리는 일에는 그다지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만약 여학우였다면 남학우의 경우처럼 약간의 웃음이 섞인 관대함으로 이해받을 수 있을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소하지만은 않은 불편함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고 대학 생활은 원래 이런 것이겠거니, 하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다시 한 번 과방으로 동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성차별적 발언이 농담처럼 오고가는 분위기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이 나의 예민함 탓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여학우들에게 과방과 동아리방은 점점 더 찾아가기 어려운 공간이 된다.

__여학생 휴게실 이야기

이처럼 학내에는 여학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 운동장과 헬스장에서도, 흡연 구역에서도, 과방이나 동아리방에서도 편안하게 발붙이고 있기에 '어색한' 여학우들은 여학생 휴게실로 향한다. 공강 시간에 마땅히 갈 곳이 없거나, 몸이 피곤해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여휴가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여휴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부담스럽게 조용한 분위기로,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꽃혀 있는 여성 잡지를 보거나, 누워서 쉬는 정도의 의미로 운영된다. 물론 이런 부분 또한 여휴의 중요한 의미이다. 하지만 여학생 휴게실이 학내에서 여학우들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생겨난 것인 만큼 학내의 성불평등한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학교 내에서 여학우들만이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장

소도 여휴를 제외하고는 그리 흔하지 않다.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기억을 성토하고, 수업 중 교수님이 아무렇게나 내뱉은 성차별적 발언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든든한 여휴는 어떨까, 잠시 상상해 본다. 학교 내의 공간들이 여남 모두에게 편안할 수 있다면 여학우들을 위한 '여학생 휴게실'이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휴가 생겨나 꾸려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 사회의 성불평등한 문화를 반증하는 것 아닐까. 여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날을 꿈꾸며, 함께 학내 공간들의 남성 중심성을 성찰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07__여성의 이름으로 말하다, 反언어성폭력!

__들어가기 – 언어의 칼날에서 살아남은 자, 여성

> *"미스코리아 이런 이쁜 아가씨들만 다 나와서 고르잖아요. 진선미 요새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거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사하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옆에 못난이 갖다놓으면 금방 이쁘게 보여."*
> *"요렇게 생긴 토종이 애기 잘 낳고 살림 잘하는 스타일이죠. 이제 음식도 바뀌고 해서 요즘엔 키가 큰데 이쪽이 토종이고, 우리 때와 음식이 달라 길쭉해지고 했는데 사실 (조그만 게) 감칠맛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는 지난 23일 중앙대 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자신의 제자를 두고 한 발언이다. 연설 주제부터 가관이다. "풍류를 알아야 정치도 잘 한다". 국회에서 싸우지들 말고 음악의 화음처럼 조화로운 정치를 하라는 내용의 연설이었다는데, 그 조화가 여성의 외모 비하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음이고, 풍류란 자신의 제자를 조선시대 여기(女妓)처럼 대하는 거라면 정말이지 사절이다. 중앙대 총장의 발언은 비단 자신의 제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기사를 접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 뭐 그 정도까진 아니라면 적어도 길가다가 X밟은 듯한 더러운 기분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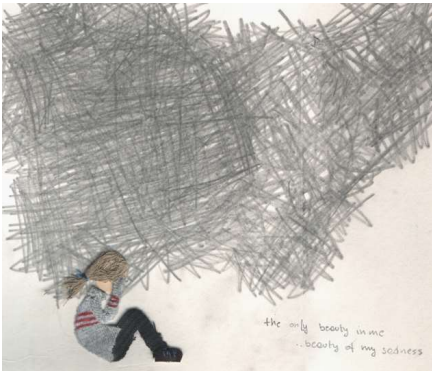
중앙대 총장처럼 여성을 성적 대상화, 비하하거나 "나 멍청하오~"를 대놓고 선포하며 기존의 불합리한 성 고정관념에 찌든 발언을 일삼는 사회 인사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해야하는 여성들의 불편함 역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그나마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 기사로 이슈화 되는 발언이 이 정도일진대, 일상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어퍼컷'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말 한마디가 주먹보다 강하게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여성들은 매번 혀가 만들어 내는 무시무시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나의 외모에 대해, 성에 대해 내뱉는 칼날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도록, 마음을 애써 무디게 만든다. 자칫 방심한 순간 얻어맞으면 그 충격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져 회복하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 어쩌면 평생 그 상처를 떠안고 살아야 할지도…….

__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너, 정체가 대체 뭐냐?
정답은 '언어성폭력'입니다

▷ 언어성폭력이란?

> *성폭력 [sexual violence].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언어성폭력이란 **언어를 매개로 한 성폭력**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 정도 말 한마디에 왜 성폭력이란 단어를 쓰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하고 화내시는 이 있다면 일단 진정하시고 사전을 잠깐 들여다보시길 권한다. 성폭력은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언어적, 심리적** 폭력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 폭력을 '폭력'이라고 명명하기

신체에 명백히 상해를 가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도 명백한 폭력이다. 그 고통의 정도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러한 말은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덜 폭력적이다(폭력이 아니

다)라는 식으로 객관적 잣대를 들이밀어 평가내릴 수 없다. 특히 언어성폭력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는(혹은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언어성폭력을 겪을 일이 없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문제 될 말이냐, 뭐가 그렇게 듣기에 상처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폭력이란 단어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간 사건 이외의 성폭력 사건은 좀 더 온건하게 성추행, 성희롱 등의 단어를 써야한다는 인식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성폭력을 비롯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고 당당하게 말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여성의 경험을 도외시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주변화해온 역사 속에서, 여성의 경험과 느낌에 무게를 싣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엄연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폭력에 대해 이 정도 발언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므로 폭력이라는 강경한 단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폭력을 가하는 이들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 피해자 중심주의

언어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과 맥락은 매우 다양하므로 어디까지를 성폭력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논리는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을 쉽게 무마할 수 있게 만들며, 한편으로 피해여성이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그러나 언어성폭력은 발언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언 자체가 지닌 성차별·폭력적 전제들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그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느냐가 언어성폭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자의적인 경험·심리·의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남자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하겠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언제 언어성폭력이라고 신고 당할지 모르니까.' 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말로 피해자가 놓인 사회적 맥락을 읽지 못한 말이다. 자신이 언어성폭력을 당했다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주어지는 집단의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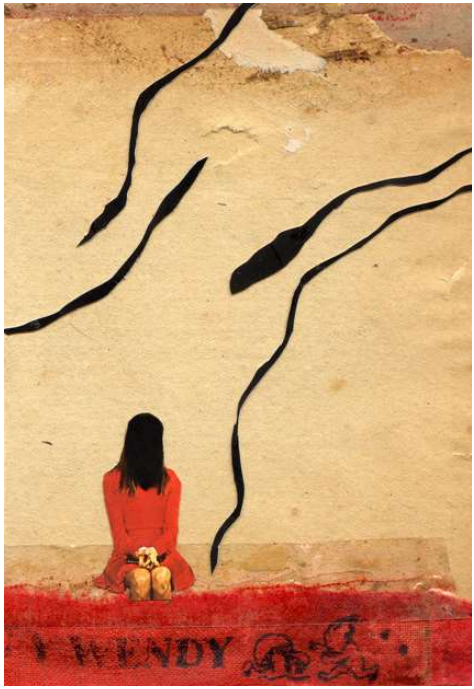
과, 자신이 겪은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상처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어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한 이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기보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퇴직하라는 암묵적인 강압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다. 교수에게 문제제기한 학생들은 학교를 휴학하거나 퇴학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는 반면, 교수들은 약간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한 학기 정도 강단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누가 자신을 향한 성적인 말들이 공론화되기를 원하겠는가? 이처럼 언어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피해자가 큰 상처나 모욕을 받았다는 뜻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도 살인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__나오기 – 언어성폭력은 사회 구조적 문제,
대학사회 전반의 보수성을 넘어서 소수의 감수성을 지지해야



우리 사회는 그리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대학사회에서조차 성폭력적인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소수의 학생을 소외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강의 수강 학생들이나 집단 내에서는 언어성폭력을 지적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특히 강의 중 언어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를 지적하는 학생은 유별난 학생으로 낙인찍힌다. “그 사람(가해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너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라는 식으로 가해자의 의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사소한 분란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책임과 부담을 홀로 감수해야 하며,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처럼 언어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는 우리 사회와 대학의 보수성 및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언어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나아가 대학 사회의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해서 비롯된 결과이다. 언어성폭력 문제는 해당 언행을 성폭력이라고 느낀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성폭력적 발언이 내포하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적 편견 및 비하적 인식에 일침을 가하고 대학 공동체 전체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해야 한다. 학내 언어 성폭력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불평등한 성 권력관계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08___위험한 여성학, 위기의 여성학

여성학은 위험하다. 아주 견고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학문의 세계가 사실은 남성들의 이야기들로만 이루어진 반편짜리 세계였음을 고발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여성학은 가려진 목소리들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이름으로 쓰인 '남성'의 역사를 뒤집어 읽기 시작한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서 있는 지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이다. 그 순간 여성학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다시금 여성학이 '위험'해지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 성균관대에서다. 하지만 위협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태롭다는 의미에서다. 현재 성균관대에서 여성학은 '연계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문과대에 개설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계전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성학은 폐강의 반복으로 인한 전공생 감소가 다시 폐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왜 성대에서 여성학은 위태로워졌을까.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만큼 여성학이 매력이 없는 탓일까. 단순히 학생들의 무관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 순간 우리는 성대에서 여성학 연계전공이 왜 위태로워졌는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성대에서, 여성학은 '위험'한가.

여성학 연계전공을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물론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관심이 적어지거나 전공자가 줄어든 책임을 여성학 자체에 돌리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비단 여성학 뿐 아니라 인문학 자체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시대에, 유독 이 성균관대에서 여성학 연계전공 과정이 처한 위기를 설명하기에 그러한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인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문학 자체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다.) 진짜 문제는 여성학이 아닌 '여성학 연계전공 과정'이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조차도 선뜻 전공을 신청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학 연계전공

의 열악한 상황들은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조차 밀어내고 있다.

__커리큘럼의 문제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전공 선택 이전에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은 해당 전공이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얼마나 자신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여성학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 또한 개설된 과목들이 자신의 여성학적 관심사들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보게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전공을 신청하고 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잦다. 더구나 C/L강의으로 개설된 강좌들의 경우, 여성학의 내용과는 무관하거나 혹은 여성학적 관점과는 반대되는 강의들이 연계되는 일이 더러 있다. 때문에 그러한 강의들을 제외해 나가다보면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수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여성학 전공 자체에서 개설된 강의조차 종종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간혹 여성학 전공자가 아닌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하실 경우, 여성학적 관점이 충분히 견지되지 않은 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성학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원했던 학생들은 실망감을 떨치기 어렵다.

__반복되는 폐강과 전공자 감소의 악순환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생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반복되는 폐강이다. 전공생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원이 채워지기 어려운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수강인원 5명 이하의 강의들은 어김없이 폐강되어왔다. 졸업 가능한 최소의 학점조차 이수할 수 없을 정도로 폐강이 잦아지자, 전공하던 중에 전공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생겨났으며, 전공 의향이 있는 학생들조차도 선뜻 전공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전공자가 줄고, 그로 인해 또 다시 강좌들이 폐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ㅅ대 사회학과의 경우, 수강 최소 인원 5명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강좌가 개설되도록 하고 있으며, ㅎ대 국어국문학과의 경우에도 정해진 수강 인원 이하의 강좌라 해도 해당 강좌의 존폐 여부가 수강생의 졸업 등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개설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대 여성학 전공의 경우 그 동안 수강 인원 미달 강의가 개설되기 어려웠다. 이

번 학기 여성학 자체 개설 강의 중 폐강 위기에 있던 강의 하나가 존속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결국 다른 한 강의는 폐강되고 말았다. 또한 반드시 이후 강의들까지 개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공생의 수가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만이라도 수강인원 미달 강의들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행정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성학 전공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여성학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이라도 전공을 신청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여성학 전공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단순히 여성학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__반과 만나요!

여성 현실제 함께 준비하실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여성 현실제는 여성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 나누는 즐거운 축제입니다^^ 발랄한 상상력으로 즐거운 여현제 함께 만들어 보아요!

